

2021년 5월 11일

Desert Southwest Conference의 회원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를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혼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주교로서 제가 현역에서 은퇴 한다는 결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편지를 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 은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2020년 총회가 연기 되었고, 이로 인해  
은퇴 일정 또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주교협의회는 통상적인 회의 순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기강서 조항이 정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이 된  
주교들을 어떻게 퇴임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긴  
과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은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교회의는 제 은퇴를 위해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직자들의 은퇴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교가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은퇴입니다. 이 방식은 2016년 규정 집 제 408.2a 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은퇴는 퇴직자가 퇴직하는 동안 부처의 기대 없이 현역에서  
은퇴자 신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직업 은퇴인데, 이것은 활동적인 주교가 은퇴 후 다른 종류의  
사역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적절한 방법입니다. 직업 은퇴에 대한 조항은 §  
408.2b에 있습니다. 이 경우, 주교는 능동적인 주거 주교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천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예는 신학교의 레지던스 안의  
주교입니다. 이 선택에서, 주교는 시간, 에너지 등에 대한 어떠한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고려하여, 기도적인 분별과 상담을 거쳐 자발적  
은퇴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부 관할권 회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의의 특별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인데, 그 때 은퇴를 허가해  
달라는 동의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1일자로 은퇴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DSC의 임무를 시작할 때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를 이끌 수 있을지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에 임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바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해 제 연설에서, 저는 우리가 존재해 온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는 것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the Desert Southwest Conference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지도하는 큰 특권과 책임을 누리 왔습니다. 저는 사제들과 장로들을 서품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영적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고 연례 회의 때 주재하며 임명직과 확장직 내각, 충실한 직원, 뛰어난 계층과 성직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의 결정은 Desert Southwest Conference를 주교의 리더십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은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주교들의 은퇴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주교회의는 차기 총회 이후 열리는 서부관할회의까지는 새로운 주교들의 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차기 총회는 현재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 후 2022년 가을에 서부 관할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Desert Southwest Conference가 2022년 가을에 새로운 주교들의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여러분의 차기 상주 주교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주교회의 공석은 주교회의 407조에 따라 채워집니다. 많은 그룹들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는 Desert Southwest Conference의 위원회와 우리 내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과 함께, 서부 관할 지역에서 온 한 팀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과정의 진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부터 10월 1일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연례 회의 세션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과 사회 정의, 인종 차별 철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포하고

우리가 COVID-19 의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부상함에 따라 서로를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부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정력과 믿음을 돌려 사랑스럽게 임합시다. 그러면서도 서로 기도하며 '예수를 바라보자'(히브리서 12:2 NIV)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축복을 빕니다,

교주 Bob 으로부터,